

EU, 3-MCPD 기준 강화 동향

2026. 5.

기획정책본부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

□ 개요

- 유럽연합(EU)은 유럽식품안전청(EFSA)의 2016년 및 2018년 과학적 의견을 근거로, 식품 제조·정제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3-MCPD 및 글리시딜 지방산에스테르(GE)에 대한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음¹⁾
- 현재 식물성 유지, 어유, 영아용 조제식 등에 대하여 그 기준을 마련·운영 중이며, 최근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중임
- EU의 3-MCPD 등 기준 강화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, 우리나라 식품기업이 유럽시장 수출 시 개정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

□ EU 3-MCPD 관련 규정 주요 연혁

연도	관련 규정	주요 내용
2016	—	EFSA, 식품 내 3-MCPD·글리시딜에스테르 인체 위해 관련 과학적 의견 채택
2017	—	EFSA, 3-MCPD 및 그 지방산 에스테르 위해평가 업데이트(2018년 게재)
2020	(EU) 2020/1322	특정 영유아 식품 대상 3-MCPD 기준 최초 설정
2023	(EU) 2023/915	식물성 유지·어유, 영아용 조제식 등 관련 기준 통합 및 정비
2024	(EU) 2024/1003	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의 3-MCPD 기준 추가 강화

□ 개정안 주요 내용

○ WTO 통보

- EU는 2026년 3월 27일 WTO SPS 위원회에 규정(EU) 2023/915* 개정안을 통보²⁾하고, 2026년 5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

* 식품 중 특정 오염물질 최대 허용 기준에 관한 유럽 집행위원회 규정

1) 유럽집행위원회 Comitology Register (<https://ec.europa.eu/transparency/comitology-register/screen/documents/111624/2>)

2) WTO, G/SPS/N/EU/935

(<https://eping.wto.org/en/Search/Index?countryIds=U918%2CC704&freeText=2023%2F915&viewData=G%2FSPS%2FN%2FEU%2F935>)

○ 적용대상 품목 확대

- 3-MCPD 및 글리시딜에스테르 적용 대상 품목을 현행 3개에서 5개로 확대함

현행	개정 후	비고
식물성 유지·어유	좌동	유지
영유아 가공식품 제조용 식물성 유지·어유	좌동	유지
영아용·성장기용 조제식, 영유아 특수의료용도식품, 영유아 조제식	좌동	유지
—	이유식 및 곡류 기반 영유아 가공식품	신설
—	지방 함량 5% 초과 복합식품* (식물성 유지, 어유 및/또는 기타 해양생물 유래 오일이 첨가된 식품) (예시)과자류·라면류·스낵류·베이커리류·소스류·즉석식품 등이 해당 가능	신설

* 단, ▲영아용 조제식 등 ▲튀김옷을 입힌 육류·수산물 제품 제외

○ 품목별 기준 강화

품목	3-MCPD (μg/kg)		글리시딜에스테르 GE (μg/kg)	
	현행	개정 후*	현행	개정 후*
이유식 및 곡류 기반 영유아 가공식품	—	50	—	25
지방 함량 5% 초과 복합식품	—	1,250 ~ 2,500**	—	1,000
이유식 및 영유아 곡류 기반 가공식품 제조용 식물성 유지, 어유 및 기타 해양생물 유래 오일	750	500	500	250

*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

** 지방 함량 기준(μg/kg fat) 및 사용 유지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

○ 경과조치

- 2027년 1월 1일 이전 적법하게 EU 시장에 유통된 제품은 최소보존기한 또는 소비기한까지 판매 가능함

□ 시사점

- EU가 공개한 3-MCPD 등 기준 강화 개정안은 인체 건강 보호를 위하여 현행 기준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및 기준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
- 특히 지방 함량 5% 초과 복합식품 범주가 신설되면서, 팜유 등 정제 유지를 사용하는 라면, 스낵류, 베이커리류, 소스류 및 즉석식품 등이 신규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임
- 이에 따라 국내 식품기업은 사용 유지류의 종류 및 함량,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 생성 가능성, 완제품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
- 향후 EU는 관보를 통해 최종안 발표할 예정이며, 최종안의 품목 및 기준과 시행일 등을 확인하여 수출 제품 등에 대한 강화 규정 적용에 면밀히 대비하여야 함
- 식품안전정보원은 EU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후 해당 내용을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임

본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·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.

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·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.

식품안전정보원 기획정책본부
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(☎ 02-744-8144)
